

# 稅 혜택 축소 전에... 강남, 임대사업 등록 3배 늘어

### 서초·송파구 각각 777건 등록 노원 108→183→557건 증가

정부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발표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9월 들어 서울 강남권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전월 대비 최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바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늘어나는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총 1050건으로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11일 만에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4월 양도소득세 종과를 앞두고 지난 3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3월 못지않게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는 17일 기준 나란히 777건이 등록됐다. 지난 8월 서초구의 등록 건수가 238건, 송파구는 303건이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비강남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는 17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총 931건으로 7월 457건, 8월 548건보다 크게 늘었다. 양천구도 이달 말까지 임대등록자 수가 강남구에 이어 1천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형 아파트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경

우 지난 7월과 8월 각각 108건, 183건에 그쳤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이달 18일 현재 557건으로 증가했다.

평소 임대등록이 많지 않았던 영등포구도 지난 8월 169건에서 9월에는 181건 현재 367건으로 증가했고, 용산구는 8월 82건에서 이달에는 181건 현재 2.8배 수준인 230건으로 늘었다.

마포구는 이달 18일까지 111건이 등록돼 다른 구에 비해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8월 한 달(152건) 신청 건수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은 지난 2일 "신규 임대사업등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바로 다음 날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구청의 임대사업등록 접수창구는

밀려 들어오는 신청자로 복새통을 이뤘고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도 관련 업무 처리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울 정도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등록하겠다고 한꺼번에 민원인들이 몰려들었다"며 "그간 임대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등록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9·13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임대등록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종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까닭이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 3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종과하

고, 서울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피할 목적의 임대사업 등록도 줄을 잇고 있다.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는 증여 신청도 늘고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다. 부부 간 증여 시 10년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되는 만큼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한은행 도곡PMW 이남수 PB팀장은 "9·13 대책 이후 절세가 자산가들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임대등록이나 증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 증여 시 똑같이 양도세가 종과되는 등 매도에 비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추석연휴 지하철·버스 새벽 2시까지 연장

### 서울시, 24~25일 특별교통대책 올빼미버스·심야택시 정상운영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19일 귀경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인 24일과 25일에 지하철(1~9호선, 우이신설선)과 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그 대상이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2800여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운행해 밤늦게 서울에 도착해도 시내 이동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묘객을 위해서도 같은 날 용미리(774번)·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고속도로 상하행선이 벌초 및 나들이객의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뉴스1

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도 22일~26일 운행횟수를 하루 평균 840회씩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 빅데이터로 분석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자들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픽스 누리집이나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일자별·시간대별 서울시내도로의 정체구간과 통과 소요시간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

울교통정보센터 토픽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중교통과 도로소통 예보를 이용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구직자 51% "구직 중단 경험·포기 상태"

### 사람인, 상반기 456명 대상 조사 원인 35% '어차피 안될 것' 불안감

구직을 중단했거나 아예 포기한 구직자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이인(이하 사람인)이 지난 상반기 구직자 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을 중단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 아예 포기 상태'라고 답한 응답자가 50.7%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구직을 포기한 가장 큰 원인은 '취업이 어차피 안될 것이라는 불안감'(35.1%)이었다. 어떤 시도를 해도 소용 없다는 무기력증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직 단념 경험이 많아지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층의 사회진출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사람이인은 지난 5월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를 인용해, 첫 취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1개월로 '6개월~1년 미만'(49.6%), '1~2년 미만'(12%)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의 비중도 조금씩 늘었는데, '2~3년 미만'은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8.8%→10.8%) 증가했다.

기업들도 신입사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사람이인 기업 499곳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졸 기준 '신입사원 나이가 높아지는 추세'(68.1%)라는 기업이 많았다. 30대 이상 신입사원을 채용한 경험도 69.5%에 이르렀다. 2018년 상반기 30대 이상 신입 지원자의 비율도 지난해 채용 대비 증가했다(48.1%)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범종 기자 joker@



###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 부부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60+ 시니어일자리 한마당'에서 부부로 보이는 시니어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에게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 행사에는 115개사 2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장·노년 구직자 1238명을 채용한다. /연합뉴스

## 22~26일 초·중·고 425곳 주차장 무료개방

서울시교육청은 추석 연휴인 22일~26일 서울 시민과 역(逆)귀성객을 위해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서울시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총 425곳이 학교 주차 시설 개방에 참여한다.

서울 시민 또는 귀성객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거주지 인근 학교가 개방 대상 학교인지 여부와 개방시간 등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주차 시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해당 학교를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추석 연휴 학교 개방에 따라, 주차 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모·형제와 친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역(逆)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범종 기자

### "깜깜이 해외연수 꼼짝마!"

## 부당집행 910만원 '주민감사청구'로 환수

#. 2016년 대만, 2017년 두바이로 공무원 해외여행을 한 서울시 A구의회는 심사결과 여행 부적격 직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여행경비는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여행사에 직접 지급했다. 항공권 구입 시 정부항공운송료의(GTR)와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공무원 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 2016년 일본으로 공무원 해외여행을 한 B구의회는 현지에서 차량을 빌려 여행하면서 교통비를 과다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았다. 또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인용할 수 없고 창작해야 할 의견 서술 부분(느낌, 견학 후기)을 특정 잡지에서 일부

무단 사용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된 것이다. '눈먼 돈'으로 '깜깜이' 해외연수를 일삼는 지방자치회의 '외유'를 주민들이 잡아냈다.

서울시 시민감사유무조사위원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자치구의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5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부당집행 예산(총 910만5638원) 환수 등의 조치를 했고, 1건은 감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광실 일정, 부적절한 여비집행, 공무원 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이 주로 문

제가 됐다.

A구의회에 대해서는 과다산정 여비 739만9천780원 환수가 이뤄졌고, 여비 업무 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직원 교육을 하라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B구의회에 대해서는 과다산정 여비 145만3천900원을 환수하고, 국외 항공 운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시민감사유무조사위원회는 자치구의회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가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감사결과 및 지적 사례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해외연수 관련 업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